

한국 도자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강 경 숙*

- I. 머리말
- II. 연구 현황과 성과
- III. 도자사 연구 쟁점과 연구 방법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공예사는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 유리 및 옥공예의 역사를 통틀어 말한다. 미술사에서 공예는 회화, 조각과는 달리 쓰임이라는 면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역이므로 장인의 예술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사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 당시 문화의 뿌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르이다. 이 가운데 도자공예는 신석기시대 흙을 다루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길다. 도자사 자료는 생산지, 무덤, 생활지, 기타 등으로부터 수집된다. 수집자료는 자료분석과 이와 관계되는 증거에 의해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왔다. 근자에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과 발굴에 의한 정보가 계속 축적되고 주변국의 왕래가

* 충북대학교 교수.

자유로워지면서 1990년대 이후 도자사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각 대학마다 연구자도 현저히 증가하여 이 시점에서 앞으로 '도자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 현황과 성과를 회고한 후, 주제별로 연구 쟁점과 연구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현황과 성과

도자사 연구의 현황과 성과는 2000년까지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¹ 이를 바탕으로 연구사는 1900-1945년(일본 학자의 연구시기), 1945-1960년(소강시기), 1960년대(모색시기), 1970년대(성장시기), 1980년대(제1 발전시기), 1990-2003년(제2 발전시기)의 여섯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는 10년 단위로 성장 발전한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1) 1900-1945년(일본 학자의 연구시기)에는 야기쇼자부로(八木奘三郎)가 李王家와 조선총독부의 명을 받아 계룡산, 영동, 고령, 김해, 경주 등에서 분청사기, 청자, 백자가마터 조사를 했고 이 내용은 1938-1939년에 공개되었다. 스에마즈쿠미히코(末松熊彦)는 1914년 강진군 대구면 일대 청자가마터의 존재를 밝혔으며 1916년에는 이마니시(今西龍) 지휘하에 명종 지렁이 발굴되어 <청자상감여지문대접>이 출토되고 또한 인종 장릉 출토 비색청자 일괄이 이 때에 알려졌다. 1920-1930년대는 노모리타케시(野守健)가 각지에서 가마터를 찾는 한편 1927년에는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터를 발굴했고, 1938년에는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에서 청자가마터 시굴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高麗陶磁の研究』를 집대성하였다. 이외 아사카와하쿠코(淺川伯教), 야나기무네요시(柳宗悅), 오쿠다세이이찌(奥田誠一), 나카오만조(中尾萬三), 우치야마쇼조(内山省三), 기타의 사람들에 의해 청자, 분청사기, 조선

¹ 김재열, 「한국공예사연구 30년: 도자기」, 『미술사학연구』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강경숙, 「한국도자사 연구의 문제와 방향」, 『고고미술사론』 1(충북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 1990); 「한국도자사 연구 50년」, 『한국학보』 83집(일지사, 1996);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미술사연구』 12(미술사연구회, 1998); 「20세기 한국예술헌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도자사를 중심으로-」, 『20세기 한국예술헌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제2회 한국예술헌종합학교 전통예술헌 학술심포지엄(한국예술헌종합학교 전통예술헌 · 한국음악사학회, 2000).

백자에 대한 문헌사 연구, 수필, 기행문 등과 같은 글이 수십 편 발표되었다.〈참고문헌 1〉 참조

이 시기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문헌적인 기초 연구와 가마터 조사 그리고 한 두 건의 편년자료의 발굴 등에서 공로가 인정되나, 무분별한 조사와 발굴로 인한 도굴의 조장은 가마터 파괴로 이어졌고 또한 식민지사관에 입각한 해석상의 오류도 도자사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

2) 1945-1960년(소강시기)은 8·15해방, 6·25전쟁, 국권 회복 등의 국란으로 국내에서는 도자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의 연구 결과가 『세계도자전집』 시리즈 중에 13권(조선상대·고려편)과 14권(이조편)으로 결산되었는데 19인의 집필진 가운데 한국 학자가 한 사람도 없는 점은 도자사 연구가 1960년까지도 일본 학자의 독점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참고문헌 2〉 참조

3) 1960년대(모색시기)는 고고미술동인회가 발족되면서 미술사 연구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도자사 연구는 국립박물관 미술과가 중심이 되어 가마터 발굴부터 시작하였다. 발굴 내용은 光州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1963),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1964-1977), 廣州 도마리 백자가마터(1964-1965), 인천 경서동 청자가마터(1965-1966), 부안 유천리 청자가마터(1966) 등이다. 한편 경주 망성리의 신라 토기가마터(1963)도 발굴되었다. 이들의 보고서는 1990년대에 출간되었고 사당리와 유천리 가마터 발굴은 아직 정리 중에 있다. 이들 발굴을 통해 강진 靑磁瓦의 연대, 인천 경서동의 녹색 조질청자에 대한 해석, 부안 유천리 청자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은 각종의 명문과 祭器 그리고 갑발의 존재를 파악한 계기가 되었으며 廣州 관요 도마리 백자가마터 발굴은 청화백자 제작상황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 외에 통일신라 말-고려 초기의 연대를 보이는 울릉도 천부동 고분으로부터 편병, 광구병 등의 출토는 이들 형태가 고려청자의 기형과 연결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도자사 논문으로는 분청사기에 관한 강경숙과 정양모의 두 편의 글이 처음 발표되고 분원백자 연구에 기초가 되는 강만길과 北村秀人의 글이 있다.〈참고문헌 3〉 참조

4) 1970년대(성장시기)는 강진 사당리의 청자가마터 발굴이 이어지는 한편, 가마터의 지표조사가 산발적으로 있었다. 1976-1977년에 신안 해저 침몰선으로부터의 중국 용천요 청자 인양작업은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며 도자사 연구에 자극이 되었다. 또한 서울 사

당동에서는 신라 토기가마터가 발굴되었다. 동화출판공사에서 펴낸 『한국미술전집』 15권 중 토기, 고려도자, 백자 등을 다룬 세 권과 특히 일본에서 나온 『세계도자전집』 22권 중 한국고대, 고려, 이조 등을 다룬 세 권에는 한국도자사 통론, 도판해설, 기타 등이 있는데 한국학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 도자사 연구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벗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논문으로는 고려청자 발생과 상감청자 발생에 관한 정양모, 요시오카칸수케(吉岡完祐)의 논문이 있는데 이들은 1980년대 청자연구에 활력소가 되었다.〈참고문헌 4〉 참조

5) 1980년대(제1 발전시기)는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1970년대까지 연구를 주도한 사람은 최순우, 정양모였다면 1980년대는 강경숙, 윤용이, 김영원, 최건, 김재열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한국도자사 개설』과 『분청사기 연구』가 저서로서 출판되고 분원 백자 연구, 충효동 분청사기 편년 연구, 고려 철회청자, 고려백자 연구, 조선전기의 청화백자 등의 석사논문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 외에도 분원설치 시기 문제, 청화백자문양과 회화와의 관계, 통일신라 토기골호 편년 연구, 분청사기와 상감백자와의 관계, 한국청자 발생과 분청사기 성립에 관한 배경적 고찰 등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여세는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고려시대의 도도자공예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종합 연구물이 『고고미술』에 발표된 성과도 있었다. 한국 도자사와 관계가 깊은 신안 앞바다 인양 도자의 편년 문제를 다룬 논문도 주목된다. 북한에서는 왕성수와 천석근의 고려청자에 관한 글과 조대일의 분청사기에 관한 글이 있으나 고증적인 논리는 미흡하다.〈참고문헌 5〉 참조

발굴조사는 청원 궁평리, 부여 송국리, 순천 대곡리, 보령 관창리, 논산 원북리 등의 청동기시대 토기가마터, 진천 산수리·삼룡리의 백제 토기가마터, 부여 정암리의 백제시대 기와·토기가마터, 영암 구림리의 통일신라시대 가마터, 강진 용운리·고창 용계리·용인 서리·봉천 원산리 등의 고려 청자가마터, 경기도 광주 번천리·선동리의 조선 관요 백자가마터 그리고 순천 후곡리의 조선 지방 백자가마터 등이 발굴되어 도자사 연구는 한층 활기를 띠었다. 특히 용인 서리, 고창 용계리, 봉천 원산리 등 세 곳의 청자가마터 발굴에서는 청자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벽돌가마구조가 확인되고 〈순화3년(992)명 제기〉, 〈태평임술(1022)명 평와편〉 등의 편년자료가 수습되어 청자연구에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광주 번천리에서는 〈가정33년(1554)명 묘지편〉이, 선동리에서는 1640-1649년에 해당되는 간지명 백자편이 수습되어 관요백자 편년 연구에도 진일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발굴 배경에는 지표조사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외에 중앙일보 계간미술 『한국의 미』 시리즈(24권) 중 백자, 분청사기, 청자, 토기 등

에 실린 글과 도서출판 예경에서 출판된 『국보』 시리즈 중에 실린 도자기에 관한 글과 해설은 대중화에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기획전시에는 이화여대 박물관의 《부안유천리요 고려도자》, 《분청사기》, 《통일신라 고려질그릇》(1983-1986) 등이 있고 호암미술관에서 개최한 세 번에 걸친 《조선백자전》(1983-1987),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청자명품특별전》(1989) 등은 학계와 대중에게 도자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6) 1990-2003년(제2 발전시기)까지 13년간은 저서, 논문, 발굴 등 대발전을 이루었다. 저서로는 그간의 논문을 모은 정양모, 윤용이, 강경숙 등의 책이 있고, 교양 문고본으로는 토기·청자·분청사기·백자·질그릇 등이 있으며 그 외 교양 단행본이 있다. 박사논문이 단행본으로 나온 것으로는 김영원의 조선전기 분원 설치에 관한 연구와 방병선의 조선 후기 백자연구가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2002년에 발표된 이종민의 시흥 방산동 초기 청자 가마터를 중심으로 청자 발생시기와 전축요를 논한 논문과 장남원의 고려중기 청자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외에도 고려청자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중국 越州窯 청자에 대한 세 편의 논문이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각각 발표되어 국내외에서의 청자 발생 연구는 교류사의 측면에서 앞으로 한 단계 비약할 것임이 틀림없다. 토기논문으로는 강경숙의 고구려토기의 대중교섭과 이송란의 고신라 고분 출토 토우장식토기에 보이는 남방적 요소라는 글이 주목된다. 또한 백제시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도자가 한반도 도자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 편의 논문도 주목된다. 이희관은 중국 오대의 옥환저완이 고려의 선해무리굽과 관계된다고 봄으로써 청자발생은 10세기 초라고 주장했고, 또한 10세기에 중서부지방 가마는 私窯이고 남서부지방 가마는 瓷器所로서 이원체제의 운영을 하였다고 논한 두 편의 논문이 주목된다. 조선 청화백자 기원문제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글로는 중국 청화자기 기원을 다룬 김원동의 논문이 있다. 또한 강경숙의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광주 자기소 네 곳 중 벌을천에서 상품을 제작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곳이 경기도 광주시 상변천 2리 산86번지 내곡(안골)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동시에 제작되었던 '변천분청 2호' 가마라고 주장한 논문은 分院 설치 이전 백자 연구에 일조하였다. 이 외에 과학적 분석으로는 분청사기와 조선 백자의 도편분석 그리고 가마의 考古地磁氣 측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참고문헌 6-1,2,3,4,5,6〉 참조

이 시기의 괄목할 만한 상황은 가마터 발굴과 강진 지표조사이다. 삼국시대 토기가마터는 영남지방에서만 20여 곳에서 알려졌는데 특히 이 가운데에서 5-6세기에 속하는 가마로는 경주의 손곡동에서 63기,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에서 41기가 발굴되어 대단히 가마터

가 알려졌다. 통일신라시대의 가마로는 충남 보령 진죽리와 울산시 방리 등에서 알려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지하식의 등요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토기가마터로는 김천 대성리에서 네 기의 가마와 시흥 방산동, 용인 보정리, 안성 화곡리 등에서 비교적 좋은 상태로 발굴되어 학계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강진 삼흥리에서 청자와 토기가마가 한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된 소위 겸업체제 관계가 밝혀졌고 고창 용계리에서는 10여 기의 고려 토기가마가 한 지역에 밀집하여 나타난 현상이 발견되어 청자와 토기제작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학술적인 정황들로서 주목된다. 조선시대는 청도 순지리, 사천 우산리 등에서 토기(옹기)가마터가 발굴 혹은 시굴되었으나 전모를 밝힐 만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도 순지리 출토 토기는 16세기 후반 일본 히젠(肥前) 陶磁에 영향을 주었다는 최근의 논문이 주목된다.²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토기 생산가마가 알려지고 있어 자기와의 관계 하에서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강진 일대에서 1991년에 실시한 정밀지표 조사는 200여 곳의 청자가마터를 확인하였고 수습도편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강진청자자료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는 도편이 도자사 연구에 기초가 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남 진산리,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 시흥 방산동, 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와 서리 상반마을, 여주 중암리 등에서 고려 초기부터 13세기에 걸친 가마들이 발굴됨에 따라 강진 이외의 지방청자가마를 통해 고려시대 서민들 생활상의 일면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분청사기 가마터는 모두 11곳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특히 光州 충효동에서 1963년 발굴한 가마를 1991년 재발굴함으로써 완전한 퇴적층과 일곱 기의 가마가 확인되었고 이는 분청사기 편년에 기준을 제공한 성과로 평가된다. 2001년 고창 용산리에서 계단식의 연실등요 구조의 분청사기가마터 발굴은 가마구조 연구에 새로운 일면을 제공하였고, 2003년 4월에는 고창 용계리에서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가마가 시굴되어 분청사기 연구는 진일보하게 되었다. 진해 두동리의 웅천요에서는 15세기 말-16세기 전반에 걸쳐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하여 가는 여섯 기의 가마가 발굴되었다. 이 외에도 보령 용수리, 고흥 운대리, 울산시 두동면 고지평, 영동 사부리, 나주 우산리 안심마을, 보은 적암리 등에서의 발굴은 15-16세기 분청사기 가마구조 및 도편 연구에 일조하였다.

² 혼다마비(本田まび), 「壬辰倭亂 前後の 韓日陶磁 比較研究-日本 九州 肥前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논문, 2003).

백자가마터 발굴은 1960년대부터 2003년 5월 현재까지 남북한을 합하여 모두 36곳에서 발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2곳이 1990년대 이후 이루어졌다. 특히 36곳 중에는 경기도 광주 관요 백자가마터가 9곳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지방 백자가마터이다. 이처럼 지방백자 가마구조와 도편에 대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앞으로 조선백자 연구는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III. 도자사 연구 쟁점과 연구 방법

1) 삼국시대의 토기연구는 가마터들이 활발히 발굴되고 있어 학술적인 쟁점보다는 가마구조 연구와 도편에 대한 편년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즉, 4-5세기로 편년되는 진천 산수리·삼룡리의 백제 토기가마터,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창녕 여초리 가야토기 가마터, 5-6세기로 편년되는 경주 손곡동,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의 신라토기 가마터들은 종합적인 구조 파악과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³ 특히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에서는 완전 지하굴식,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한 지역에서 모두 발견되어, 그 선후 관계를 밝히고 수습된 토기편의 양식적인 특징을 비교 연구한다면 삼국시대 토기 변천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전남 나주에서 발굴한 오량동의 옹관제작 가마터에 대한 문제이다. 발굴자는 옹관을 구웠던 옹관가마로 주장하나 가마구조로 보아 과연 대형옹기를 어떤 모습으로 구울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삼국시대의 토기연구는 지금까지 조사 발굴된 자료에 대한 천착된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앞으로의 새로운 자료가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³ 최병현, 「진천 산수리 백제토기 요지군」, 『한국상고사학보 II』(한국상고사학회:학연문화사, 1993); 국립진주박물관, 『창녕여초리 토기가마터(I)』(1992); 이상준, 「손곡동 토기가마의 유형과 구조적 특징」, 『연보』 8(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문화재 보호재단·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예정부지 C-1 지구 발굴조사보고서』(1999); 영남 문화재연구원, 「대구옥수동·경산옥산동유적 발굴조사」, 영남 문화재연구원 현장설명회자료 28(2001, 8).

⁴ 이정호, “호남지방의 토기요: 삼국시대 토기요를 중심으로”, 「도자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발표 요지(2003, 4).

2) 통일신라시대 가마터로는 영암 구림리와 보령 진죽리의 8-9세기의 지하굴식과 반지하식의 토기가마가 조사된 바 있어 이들 구조와 출토 토기에 관한 성격이 구명되어야 한다. 특히 구림리 토기는 시유도기라는 점에서 청자 제작 전단계의 기술로 주목되고 있다.⁵ 한편, 벽돌가마로 운영되었던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과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초기 청자가마터 발굴에서는 청자가마 운영 직전에 지하식 토기가마가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양자간의 관계 규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과 남서부 지역의 청자발생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어 입체적인 상호 연관하에서 치밀한 도편의 양식 비교 연구가 요망되는 문제이다.

3) 고려 청자 연구에서는 발생 시기, 전축요와 토축요 관계, 상감청자의 시원과 전개, 강진요과 부안요의 상호관계, 간지명 청자 시기 재검토, 강진 이외 청자가마터, 14-15세기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의 이행시기 제 양상, 대외교섭 등의 과제가 부각되어 있다.

① 청자발생 문제: 청자발생 문제는 일제강점기의 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세기적인 논쟁거리이다. 토기에서 자기 생산으로의 발전은 도자 기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생시기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네 곳의 초기 청자가마터 발굴을 기점으로 연구 양상이 크게 진전되었다. 1983년 전북 고창군 용계리, 1984-1988년 경기도 용인시 서리, 1989년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1997-1998년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서 초기 청자가마터가 발굴되면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원산리와 방산동의 벽돌가마는 진흙가마로 이행하지 못하고 폐요된 데 비해, 서리는 청자생산으로 출발한 벽돌가마 구조에서 백자만을 제작하는 진흙가마로 발전하였다. 이상의 가마들을 발굴한 결과와 새로운 해석에 의해, 9세기 전반·9세기 후반·10세기 전반·10세기 후반 등의 발생설이 피력되어 있다.⁶ 9세기 전반설은 용인 서리 청자가마터 퇴적층 발굴과 강진 지표수습 도편에 기초한 주장이다.⁷ 9세기 후반설은 월주요 청자의 국내 출토 상황과 일본·동남아 등지에서 출토된 청자들과 함께 편년 가능한 월주요 청자에 대비

5 <參考文獻 6-6> 姜景仁·鄭昌柱, ② 논문; Pamela B. Vandiver·Jennifer Hooper, 논문.

6 청자 발생설 주장자들의 견해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의 글에서 언급 인용되었으므로 대부분 생략했고 여기서는 1980년대 이후 직접 발굴과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학자들의 주장만을 다루었다.

7 <參考文獻 4> 吉岡完祐, 논문; <參考文獻 5> 金載悅, ② 논문; <參考文獻 6-3> 崔健, ③ 논문.

하여 9세기 후반설을 논한 것이고,⁸ 10세기 전반설은 방산동과 원산리 청자가마터 발굴에서 출토된 명문·기형·해무리굽 양식·문헌·기타 등을 분석한 결과로서의 주장이다.⁹ 10세기 후반설은 〈순화4년(993)명 항아리〉의 편년작품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용계리 출토 〈태평임술(1022)명 평외편〉과 원산리 출토 〈순화3년(992)명 제기편〉 등의 자료를 염두에 둔 주장과¹⁰ 절강성 상림호 일대에서 발굴한 월주요의 고고학적 층위와 기년작품에 기초한 연대에 비추어 본 중국측 학계의 연대관이다.¹¹ 그 외에 고려 초기 청자의 양식적 특징이 북송 월요와의 교류로 이루어졌다고 본 10세기 후반설이 있다.¹² 또한 9세기 후반-10세기 초를 피력한 임사민과 10세기 중후반을 피력한 기라 후미오(吉良文男)의 의견도 주목된다.¹³ 이처럼 청자 발생설 문제는 9-10세기의 정치 경제사, 9산 선문의 성립, 후삼국의 외교사 등의 배경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마구조, 도편 등의 천착된 분석 연구만이 해결책이다.

② 전축요와 토축요 관계: 청자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중서부의 벽돌가마(전축요)와 강진·해남을 중심한 남서부의 진흙가마(토축요)의 구조를 두고 발생 선후 문제와 운영 성격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최진은 소규모의 진흙가마 구조를 영암 구림리 토기가마와 같은 전통구조의 계승으로 보면서 9세기 전반에 청자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종민은 벽돌가마에서 제작된 해무리굽 완, 점권(墊圈)이라는 고리형 받침, 초벌구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예를 들어 이들이 남서부 진흙가마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으로써 중서부의 벽돌가마가 선행하며 벽돌가마가 청자가마로는 가장 이른 구조라는 주장이다.¹⁴ 이러한 배경에서 이종민은 중서부의 전축요는 관영체제였을 것으로 주장한 한편, 이희관은 남서부의 토축요는 瓷器所이고 중서부는 私窯로 운영된 이원체제라고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¹⁵ 이 문제는 강진과 해남 등의 남서부지역 초기청자 가마터가 발굴된 후에야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이나, 이처럼 여러 견해가 피력된 점에서는 이론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8 金寅圭, 「9-10世紀の越州窯青磁についての考察」(成城大學文學研究科美學美術史博士論文, 2002).

9 〈參考文獻 6-3〉李鍾玟, ③ 논문; 李喜寬, ③·⑤ 논문.

10 〈參考文獻 6-3〉尹龍二, ②·④ 논문.

11 金英美, 「越窯研究」(북경대학박사연수생 학위논문, 2002).

12 李恩敬, 「高麗與北宋越窯青瓷之交流研究」(私立中國文化大學史學研究所博士論文, 中華民國91年, 2002).

13 林士民, 『青瓷與越窯』(上海古籍出版社, 1999); 吉良文男, 「高麗青磁史への一視點」, 『東洋陶磁』東洋陶磁學會30周年記念(東洋陶磁學會, 2002).

14 〈參考文獻 6-3〉崔健, ⑥ 논문; 李鍾玟, ⑦ 논문.

15 〈參考文獻 6-3〉李鍾玟, ⑥ 논문; 李喜寬, ④ 논문.

③ 상감청자의 시원과 전개: 상감청자 시원 문제는 일찍이 12세기 초반 그리고 12세기 중반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느 것이나 고증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상감문양에 관한 글에는 용인 서리 중덕마을 가마터에서 출토된 상감편에 주목하여, 12세기에 제작한 본격적인 비색 상감기법과는 다른 소위 '원(proto)상감기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초기 상감문양에 관한 글이 있다. 이는 9세기 말-10세기 전반에 이미 상감기법이 있었음을 알렸고 이들은 중국 陝西省 黃堡窯의 영향으로 보았다.¹⁶ 이 문제도 청자발생 시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원상감기법'의 발생시기는 재고될 수 있다.

④ 강진요과 부안요의 상호관계: 강진은 초기의 해무리굽 제작 가마로부터 고려가 망하는 14세기 후반까지 청자를 제작한 데 비해, 부안은 해무리굽 제작 가마와 14세기에 속하는 고려 말기 가마가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없이 주로 12-13세기에 해당되는 상감청자가마가 조사 발굴되었다. 그런데 호암미술관 소장의 1181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국당초문신축명 벼루>는 "辛丑五月十日造 爲大口前戶正徐敬夫 清沙硯壺隻黃河寺" 라는 내용이 벼루 뒷면에 새겨져 있어 이들 명문을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강진의 청자기술이 부안으로 이전되어 어느 일정 기간에만 운영되었던 일종의 私窯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강진은 大口所를 중심으로 한 관요 체제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관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안 청자 제작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¹⁷ 그 외에 11세기 경으로 보아 온 요주요 영향의 압출양각청자는 생활유적 발굴 결과, 12-13세기의 동전과 공반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고려 중기 청자 편년을 새로 해석한 글이 있다.¹⁸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 청자 가마터는 발굴 보고서가 간행되었기 때문에 강진과의 비교연구가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 역시 도편의 치밀한 분석에 의한 양식비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간지명 청자 시기의 재검토와 분청사기로의 이행: 己巳로부터 시작하는 간지명 청자 대접의 연대 문제는 일본 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269년과 1329년의 양대 의견에서 명확한 해석이 나지 않고 있는데¹⁹ 최근의 몇몇 석사논문에서 己巳는 1269년보다는 한 갑

16 <參考文獻 6-3> 金載悅, ① 논문.

17 <參考文獻 6-3> 李喜寬, ② 논문.

18 <參考文獻 6-3> 張南原, ③ 논문.

19 • 己巳-乙未까지를 1269년-1347년까지로 본 주장은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清閑舍, 1945); 崔淳雨,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學館, 1978); <參考文獻 6-3> 鄭良謨, ① 논문; 具一會, ② 논문.

• 기사-을미까지를 1329년-1355년까지로 본 주장은 <參考文獻 6-3> 尹龍二, ① 논문; 中尾萬三 외.

• 기사-을미까지를 1269년-1295년까지로 본 주장은 <參考文獻 6-3> 李喜寬, ① 논문; 崔健, ⑤ 논문.

자 내린 1329년의 가능성을 문양과 역사적인 상황 등을 들어 피력하고 있다. 예컨대 간지명 청자와 이어지는 <청자상감연당초문정능명 대접>(1365-1374년)은 조선시대 1420년대까지 정능명 대접의 문양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司膳' 명 청자가 생산된 지역은 강진 이외의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1372년경부터는 강진 자기소가 해체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기형과 태도 분석을 통한 고려 후기 청자의 성격을 밝힌 글과 또한 14세기 고려청자의 문양이 실제로 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문양 사례를 비교 제시한 논문들에서는 대체로 1329년 己巳가 입론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²⁰ 따라서 간지명 청자의 연대는 당시의 외교 관계, 사회경제 구조 등을 밝히는 작업과 동시에 치밀한 도자 양식분석을 통해서만 이론상의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거의 막연한(?) 주장과는 달리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연구는 참신하다.

⑥ 가마터 발굴: 도자사 연구는 무엇보다 가마터 발굴이 기초가 되는데, 강진에서는 사당리·용운리·삼흥리, 부안에서는 진서리·유천리 그 외 지역에서는 인천 경서동·해남 진산리·용인 서리·여주 중암리·용인 보정리·시흥 방산동·고창 용계리·대전 구완동·음성 생리·진해 태평동 등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는 황해남도 평천군 봉암리·용진군 은동리·봉천군 원산리 등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려 초기-13세기 청자가마의 대체적인 양상이 파악되었다. 처음에는 약 40m 길이에 폭 2m 정도 크기의 벽돌가마로 시작하여 차츰 폭 1.2m의 진흙가마 구조로 전환하는데, 길이는 10여 m가 기본 구조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약 80여 m에 이르는 대형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²¹ 가마구조는 생산량과 직결되므로 경제 사회사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의 이행문제가 해석될

²⁰ <參考文獻 6-3> 朴敬子, 논문: 韓盛旭, ② 논문: 金允貞, 논문.

²¹ • 벽돌가마: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시흥시 방산동 초기청자백자 발굴조사 보고서』, 2001);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 발굴 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 제2호, 루계 제79호,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이행한 가마: 경기도 용인시 서리 중덕마을(호암미술관, 『용인서리 고려백자요』, 1987); 경기도 여주시 중암리(경기도박물관, 『중암리 백자가마』, 발굴지도위원회회의자료, 2001)
 • 진흙가마: 전남 강진군 사당리·용운리·삼흥리(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전북 부안군 진서리·유천리(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부안진서리 청자요지-제18호 요지발굴』, 2001; 원광대학교박물관, 『부안유천리 7구역 청자요지군 발굴조사보고서』, 2001); 인천 경서동(국립박물관, 『인천경서동릉청자요지』, 1990); 해남 진산리(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진산리록청자요지』, 1992); 대전광역시 중구 구완동(해강도자미술관, 『대전구완동 요지』, 2001); 경기도 용인시 보정리(기전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보정리 청자요지』 2003, 유물 정리중).

것이다.

4) 조선시대 분청사기 연구에서 광주 충효동 가마터 퇴적층위는 분청사기 편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즉, 1420년대부터 1510년대까지 약 100여 년간의 퇴적층위에서는 '成化丁酉'(1477)명 묘지편, '丁閏二'명 굽다리편 등을 통해 1470년대에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전환한 상황이 파악되었고 그 외 상대편년 자료와 각종 명문은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²² 또한 분청사기 편년 연구의 기본사료는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이를 기초로 각 지방의 분청사기 가마터 수습 도편을 분석한 편년 연구에 의하면, 분청사기의 역사는 1360년경부터이고 그 종말은 16세기 중엽경이라는 시기구분과 아울러 도편을 기초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성과가 있다.²³ 그 외에 연구로는 충효동 인화문 분청의 편년 연구, 충효동 출토 제기 연구, 분청사기와 백자의 관계 등을 밝힌 글들이 있다.²⁴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은 전남지방에서 유행한 덩빙분청과 백자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은 계단식 등요의 가마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의 무계단식 등요와 비교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시간적인 선후로 볼 수 있는 유적이다.²⁵ 이 외에도 대전 구완동과 보령 용수리 등의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에서는 '仁壽府', '長興庫'와 같은 명문이 알려졌다. 연기군 송정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에서는 '司膳'명 도편이 수습되어 15세기 전반의 활동 가마임을 밝힘과 동시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松岷里가 지금의 연기군 송정리 가마임이 밝혀졌다.²⁶ 2002년 울산시 두동면 高旨平 가마터 발굴에서는 '慶州府長興庫'명 도편이 출토되어 '경주장흥고'명 분청사기 제작지가 확인된 성과가 있었고, 2003년 4월에 발굴한 영동 추풍령면 사부리 가마터 발굴에서는 '金山長興庫', '金山仁壽府' 등의 명문이 수습됨에 따라 『세종실록』 「지리지」의 영동 황보 지역이 지금의 사부리임이 밝혀졌다.²⁷ 이처럼 분청사기는 세종 당시 토산공물의 대상이었으므로 위치와 품질이 표시되

22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충효동요지-분청사기·백자가마 퇴적층 조사』(1992).

23 〈參考文獻 5〉姜敬叔, ② 책·⑥ 논문; 〈參考文獻 6-4〉姜敬叔, ③·⑤·⑦ 논문; 李愛玲, 논문.

24 〈參考文獻 5〉金英媛, ① 논문; 〈參考文獻 6-4〉田勝昌, ①·② 논문; 鄭素羅, ② 논문.

25 국립광주박물관, 『고흥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2002); 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연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2001).

26 〈參考文獻 6-4〉姜敬叔, ③ 논문.

2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蔚山市 廣域上水道(大谷댐)사업 編入敷地內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2002. 4); 중앙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김천간 확장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2003. 4).

어 『세종실록』 「지리지」(1424-1432)에 324개 자기소와 도기소로서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 분청사기 연구는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지명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수습되는 도편은 양식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첫째, 상·중·하품의 기준을 파악하고 둘째, 경상도 지방에서만 주로 생산된 지방명과 관청명이 함께 새겨진 분청사기는 왜 경상도 지방에서만 생산하였는가, 반면에 호남지방에서는 주로 '丙矚' 만이 알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분청사기의 하한연대가 경기도 관요와 지방가마에서는 언제부터 백자화해 갔는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16세기 일본과의 도자교류를 밝히는 데도 근본 과제가 될 것이다.

5) 조선백자연구는 관요백자와 지방백자로 구분된다. 관요백자는 경기도 광주 백자 가마터에 관한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해 1980년 전후 편년 연구가 이루어져 길잡이가 되고 있다.²⁸ 그 후, 분원 설치를 중심으로 연구한 조선전기 백자 연구 그리고 분원 경영 및 도자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후기 백자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²⁹ 그 외 연구로는 청화백자 문양 연구, 기형, 상감백자, 명기, 기타 등의 논문이 주목된다.³⁰

백자가마터 발굴은 1990년대에 들어와 일년에도 수십 곳에서 발굴이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양과 내용이 축적되었다. 광주 관요로는 변천리, 우산리, 건업리, 선동리, 분원리 등에서 15-19세기에 이르는 가마터가 발굴되어 관요 백자의 편년이 설정되었고 가마구조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우산리 9-1호는 가마폭이 1.2m인데 비해, 16세기 중엽의 변천리 5호와 9호는 가마의 폭이 2m 전후에 불창기둥은 두 개 정도가 설치된 칸가마(連室窯)의 등요라는 점, 17세기 선동리 가마에는 뚜렷한 단이 형성된 有段式 등요도 있었다는 점, 19세기 분원리 가마는 가마 폭이 약 4m가 되어 앞 시대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고 불창기둥이 10여 개가 넘는 대형의 격벽칸가마(隔壁連室窯)로 운영되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지방 백자로는 경기도에서는 군포와 안성 화곡리에서 16세기 초-18세기 가마가 그리고

28 姜萬吉, 「왕조후기, 분원의 운영실태」,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한길사, 1984); 〈參考文獻 5〉 鄭良謨, ① 논문: 尹龍二, ② 논문: 〈參考文獻 6-5〉 姜敬叔, ③ 논문: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관요: 요지 지표조사보고서』 도판편, 해설편(1998, 2000).

29 〈參考文獻 6-1〉 金英媛, 저서; 方炳善, 저서.

30 〈參考文獻 5〉 姜敬叔, ⑤·⑪ 논문: 〈參考文獻 6-5〉 崔敬和, 논문: 田勝昌, ① 논문: 張南原, ② 논문: 張起熏, ① 논문: 權素玄, 논문: 李芝賢, 논문: 尹傲靖, 논문.

포천 길명리에서는 흑유를 생산한 19세기 가마가, 충청도에서는 충주 미륵리·하구암리, 영동 노근리 등에서 17세기-20세기 초의 가마가, 대전 정생동·장안동, 부여 정각리 갖점골, 보령 특전리 등에서도 16-18세기의 백자가마가, 전라도에서는 무안 피서리, 순천 문길리에서 18-19세기 가마가, 강원도 원주 귀래리에서는 18-19세기 백자가마가, 경상도 산청 방목리, 경산 음양리, 안동 신양리 등에서는 16-18세기 가마가 발굴되었다. 지방 백자가마는 관요와 궤를 같이 하지만 가마축조의 정밀성이 떨어지고 백자의 질도 관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경상도 일원의 산청 방목리, 진해 두동리, 하동 백련리 등에서는 16세기 전반 분청사기가마에서 백자로 이행해 가는 가마들이어서 소위 이도자왕(井戶茶碗)과 관련하여 현대 도예가들 사이에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있다.

앞으로 조선백자 연구는 관요백자와 지방백자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관요에 관한 문헌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정책과 도자관을 파악하고 둘째, 광주 관요 여섯 곳에서 발굴한 가마터의 가마구조와 도편에 대한 친착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지방백자 가마간의 종합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관요백자와 지방백자의 상호보완 연구가 진행될 때 조선백자의 전체 윤곽이 밝혀질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도자사 연구방법과 현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본 글을 맺으려고 한다.

1) 고고학적 방법: 도자사 연구에서 가마터 발굴은 연구의 기초를 이루며 출토유물은 1차 자료이다. 발굴은 고고학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도자사 연구자는 현장에서 가마구조를 관찰함으로써 요업기술의 변천을 체득해야 한다. 현장을 보지 않고 보고서의 도면만으로는 생생한 지식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찰의 내용은 첫째, 가마의 전체 모습, 구체적으로는 아궁이, 굴뚝, 번조실, 측면 출입문, 번조실 내의 불창의 존재, 가마의 기울기, 바닥과 벽은 몇 번 보수 혹은 개축하였나 등을 관찰하는 일이다. 다음에는 몇 기의 가마가 운영되었는가, 가마는 상하로 중첩되었나 혹은 옮겨가면서 운영했는가, 그들의 선후 관계는 어떠한가, 폐기물 퇴적상태는 어떠한가. 다음으로는 작업실 즉 제토장(수비시설 및 태토조합 장

소), 제도장(물레작업, 문양넣기, 유약입히기, 건조실), 원료(태토)의 야적장 내지는 태토 채취장이 주변에 있는가 등의 확인이다. 이처럼 도자사 연구에서 발굴의 중요성은 최근에 두 번에 걸친 학술대회로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³¹

2) 미술사적 방법: 가마터 발굴에서 수습한 도편에 대한 관찰이다. 기형, 문양, 유색, 굽 짝기 방법, 물레질 방법 등은 직접 육안으로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갑발의 존재, 요도구의 종류, 번법 즉 포개구이나 혹은 단독구이나, 그리고 기타 등을 관찰한다. 여기서 미술사적 방법론이 적용된다. 기형, 문양, 유색 등의 양식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특징과 원리를 찾아낼 것인가,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특히 절대 기년명이 출토되었을 때는 편년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가마터의 가마유구, 도편, 기타 등과 비교 고증함으로써 편년을 제시해야 한다.

3) 인문학적 방법: 역사, 지리 및 문헌 연구이다. 미술사의 다른 영역도 그러하지만 도자사에서는 당시의 도자기 제작의 배경이 뚜렷하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청자에 대한 기록은 영세하여 잘 알 수 없지만, 조선백자는 『經國大典』에 의하면 1469년 관료로서의 제도가 완비되기 때문에 제도 연구와 당시의 도자관이 파악되어야 한다. 국가의 제도하에서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 도자기 제작의 양상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청사기 경우, 고려 공민왕 때부터 상감청자는 변화가 일어나며 조선 초기를 거치면서 분청사기라는 일군의 독특한 도자기가 생산되었는데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청자에서 백자로의 이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 교류사적 방법: 토기에서 청자로, 청자에서 백자로 발전할 때 청자는 절강성 월주요의 영향이 그리고 백자는 명 청화백자의 영향이 컸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일본에게는 삼국시대 토기가 그리고 임진왜란 전후에는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아는 바이다. 이처럼 도자문화는 국제 간의 상호 영향하에서 발전 변모한다. 외래영향을 어떻게 소화 흡수하여 한국화해 왔는가, 그래서 한국 고유의 미는 어떻게 형성되

³¹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자사 연구방법으로서의 발굴」 국제학술대회(2001. 11); 한국상고사학회, 「도자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학술발표대회(2003. 4).

었다. 일본에 영향을 미친 한국 도자기는 일본 내에서 어떤 문화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교류사는 쌍방의 도자 문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한국 도자사를 먼저 섭렵한 후 중국 혹은 일본 도자사를 연구해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앞으로는 도자 교류사 연구가 중요한 과제이다.

5) 과학 분석적 방법: 양식사적인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주장한 바는 더욱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유약, 태토, 안료 등의 화학 분석은 특징, 교류관계 그리고 편년 파악에 기초가 된다. 또한 불에 단단해진 가마유구는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考古地磁氣의 실험에 의해 연대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특수 기자제가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따라야 하므로 미술사학자가 직접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마 발굴시 많은 양의 도편이 수습되므로 화학 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고고지자기 실험은 유구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축적되면 훗날 도자사 연구에 기초가 된다. 앞으로 가마터 발굴기관은 이 점을 유념하여 분석실험 자료를 많이 남겨주는 일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겨야 한다.

6) 지표조사 방법: 도자사 연구의 초보적 기초는 가마터 답사이다. 수백 년 전의 가마라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답사에 임할 때는 地圖와 여러 정보 등을 사전 수집해야 하며 지표수습 도편은 반드시 장소와 날짜를 정확히 인킹한 후 연구하고 연구가 끝나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결국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7) 도자사 연구의 현재 문제점: ① 지금까지 가마터 발굴은 대부분이 구제발굴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가 발굴하는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② 전국토가 개발분에 밀려 중요한 가마터가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인 제도가 아쉬운 데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행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③ 발굴보고서는 비용과 시간에 쫓겨 내용이 불충실하기가 쉽고 특히 비전공자가 집필하는 예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전공자가 집필하는 경우 전공자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중용해야 한다. ④ 도자용어 문제이다. 가마구조 용어로부터 도자기 명칭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이 없는 점이다. 이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도자사 연구자 전체의 문제이다. 도자사 연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 문제부터 연구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마터의 무분별한 도굴이다. 가마터가 파괴되면 1차 자료를 잃게 되므로 연구자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대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법과 문제점은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발굴은 고고학자가 해야 하고 요업기술사적인 측면은 요업기술사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학적인 분석은 화학이나 무기재료학 전공자가, 그리고 고고지자기 측정은 지질학 전문가가 각각 담당 해주어야 한다. 도자사 연구자들은 단지 인문학적 방법, 미술사적 방법, 교류사적 방법 등만이 노력하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천착된 연구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지만, 천착된 연구가 하나하나씩 모여야 학문이 깊어진다. 이제는 이러한 연구시점에 와 있다.

* 주제어(key words): 시기구분(Period Division of Ceramics History), 연구현황과 성과(Current Studies and Achievements), 연구쟁점(Issues in the Study of Ceramics History), 연구방법(Approaches in the Study of Ceramics History), 가마터 발굴(Excavation of the Kiln Sites)

参考文献 (List of References) 1 (1900-1945年)

—時代順—

著者	論文	掲載書	発行處	年度
八木契三郎	「南朝鮮古窯調査報告」	『陶磁』10-2	東洋陶磁研究所	1938
〃	「朝鮮古窯調査報告」正・續	『陶磁』11-3	東洋陶磁研究所	1939
浅川伯教	「李朝陶磁の價値及び變遷に就いて」	『白樺』13-9		1922
柳宗悦	「李朝陶磁の特質」	『白樺』3		1922
奥田誠一	「朝鮮の陶磁器に就いて」	『國華』	國華社	1923
中尾萬三	「高麗古陶磁考」	『滿蒙』		1925
内山省三	「高麗陶磁に就いて」	『陶磁』1-3	東洋陶磁研究所	1928
野守健		『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9
内山省三内		『朝鮮陶磁』	學藝書院	1933
野守健	「扶安における高麗陶磁址」	『陶磁』6-6	東洋陶磁研究所	1934
中尾萬三		『朝鮮高麗陶磁考』	學藝書院	1935
奥平武彦	「司號を刻める三島」	『陶磁』7-2	東洋陶磁研究所	1935
小田省吾		『朝鮮陶磁史文獻考』	學藝書院	1936
山田萬吉郎	「務安を通じて見たる朝鮮陶磁器」	『茶わん』6-5・6・7	寶雲舎	1936
小山富士夫		『高麗の古陶磁』	雄山閣	1937
野守健	「三島手の年代考察」	『考古學』8-5		1937
〃	「青磁象嵌干支銘に就いて」	『茶わん』96	寶雲舎	1938
笠井周一郎	「三島手の一つの銘款」	『茶わん』8-9	寶雲舎	1940
山田萬吉郎	「三島刷毛目の變遷」	『陶磁』10-6	東洋陶磁研究所	1938
高裕燮		『朝鮮の陶磁』	寶雲舎	1939
松平義明	「三島の發達に就いて」	『茶わん』8-9	寶雲舎	1940
田中豊太郎		『李朝陶磁譜』	聚樂社	1942
山田萬吉郎		『三陶刷毛目』	寶雲舎	1943
久志卓眞		『朝鮮の陶磁』	寶雲社	1944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閑社	1944
奥平武彦		『李朝』陶器講座20	雄山閣	1945

参考文献 (List of References) 2 (1945-1960年)

—目次順—

著者	論文	掲載図録	発行處	年度
藤田亮策	「朝鮮半島の歴史と文化」	『世界陶磁全集』13、 朝鮮上代・高麗篇	河出書房	1956
黒田源次	「高句麗古陶私見」	”	”	”
藤澤一夫	「百濟の土器 陶器」	”	”	”
有光教一	「新羅焼の變遷」	”	”	”
小山富士夫	「高麗陶磁序説」	”	”	”
小山富士夫	「高麗白磁・黒高麗・其の他」	”	”	”
浅川伯教	「高麗青磁私考」	”	”	”
尾崎洵盛	「高麗陶磁について」	”	”	”
野守健	「高麗陶窯址調査」	”	”	”
野守健	「高麗青磁」	”	”	”
中川千咲	「高麗象嵌青磁の模様」	”	”	”
G・ST・M・ ゴム バツ	「歐米にある高麗陶磁」	”	”	”
佐藤雅彦	「銘記のある高麗陶磁」	”	”	”
旗田巍	「李朝の文化」	『世界陶磁全集』14卷 李朝篇	河出書房	1956
小山富士夫	「李朝陶磁概説」	”	”	”
田中豊太郎	「三島手の陶器」	”	”	”
笠井周一郎	「染付・辰砂」	”	”	”
浅川伯教	「白磁・鐵繪・天目・その他」	”	”	”
山田萬吉郎	「全羅道の李朝窯址」	”	”	”
小山富士夫	「禮賓三島」	”	”	”
野守健	「鷄籠山」	”	”	”
浅川伯教	「釜山窯」	”	”	”
土井濱一	「李朝陶磁水滴隨想」	”	”	”
松本榮一	「茶陶としての李朝もの」	”	”	”
満岡忠成	「高麗茶碗の名品」	”	”	”
浅川伯教	「李朝の窯跡と採集品の記録」	”	”	”
	附録1, “世宗實錄地理志抄録”	”	”	”
	附録2, “李朝陶磁窯跡 一覽表”	”	”	”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3 (1960年代)

著者	論文	掲載	発行處	年度
姜敬淑	「李朝 粉青沙器의 研究」	『梨大史苑』5	梨大史學會	1964
姜萬吉	「朝鮮前期工匠考」	『史學研究』12	韓國史學會	1961
〃	「分院研究」	『亞細亞研究』20	高麗大亞細亞 問題研究所	1965
鄭良謨	「粉青沙器 印花文대접 試考」	『歷史學報』27	歷史學會	1965
崔淳雨	「康津 沙堂里窯址 出土 青磁瓦」	『美術資料』9	國立中央博物館	1964
〃	「高麗青磁瓦」	『美術資料』13	國立中央博物館	1969
北村秀人	「高麗時代 所 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50	朝鮮學會	1969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4 (1970年代)

著者	論文	掲載・著書	発行處	年度
金元龍・李鍾宣	「舍堂洞 新羅土器窯址 發掘調査略報」	『文化財』11	文化財管理局	1977
鄭良謨	「高麗青磁와 青磁象嵌 발생의 側面的 考察」	『潤松文華』6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74
〃	「1976・77年 調査 新安海域 陶磁器의 編年的 考察」	『考古美術』136・137	韓國美術史學會	1978
〃	「新安 海底 發見 陶磁器의 種類」	『考古美術』138・139	韓國美術史學會	1978
吉岡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博物館	1979
金元龍	「韓國古代の歴史と文化」	『世界陶磁全集』17 韓國古代篇	小學館	1979
〃	「金海式土器」	〃	〃	〃
〃	「古新羅の土器と土偶」	〃	〃	〃
韓炳三	「櫛目文土器」	〃	〃	〃
〃	「統一新羅土器」	〃	〃	〃
尹武炳	「無文土器」	〃	〃	〃
金廷學	「伽倻土器」	〃	〃	〃
朴容瑱	「韓國古代の瓦埴」	〃	〃	〃
岡崎敬	「高句麗の土器・陶器と瓦埴」	〃	〃	〃
小山富士雄	「百濟土器」	〃	〃	〃
西谷正	「日本における韓式土器・陶器」	〃	〃	〃
李基白	「高麗の文化と磁器」	『世界陶磁全集』18卷 高麗篇	小學館	1978
崔淳雨	「高麗陶磁の編年」	〃	〃	〃
鄭良謨	①「高麗陶磁の窯址と出土品」	〃	〃	〃
〃	②「碗鉢による高麗陶磁編年」	〃	〃	〃
〃	③「記銘詩文のある高麗陶磁」	〃	〃	〃

鄭良謨	④「高麗陶磁に關する古文獻資料」	〃	〃	〃
長谷部樂爾	「鐵繪青磁鐵彩手鐵釉」	〃	〃	〃
崔淳雨・林永周	「高麗陶磁の文様」	〃	〃	〃
韓永愚	「李朝時代の文化と陶磁」	『世界陶磁全集』19卷 李朝篇	小學館	〃
鄭良謨	「李朝陶磁の編年」	〃	〃	〃
〃	「李朝陶磁に關する古文獻資料」	〃	〃	〃
林屋晴三	「高麗茶碗」	〃	〃	〃
姜萬吉・宋贊植	「官營經營と沙器匠」	〃	〃	〃
鄭良謨・ 香本不苦治	「李朝陶磁の窯跡と出土品」	〃	〃	〃
香本不苦治・ 鄭良謨篇・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	〃	〃
鄭良謨・林永周	「李朝陶磁文様」	〃	〃	〃
金得豊・尹龍二	「年代銘李朝陶磁」	〃	〃	〃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5 (1980年代)

著者	論文	掲載・著書	發行處	年度
姜敬淑		①『粉青沙器의 研究』	梨花女大 博士論文	1986
〃		②『粉青沙器研究』	一志社	1986
〃		③『韓國の粉青沙器』	近藤出版社	1987
〃		④『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	⑤「朝鮮初期 白磁의 文様과 朝鮮初・ 中期 繪畫와의 關係－ 青華白磁弘治二年銘松竹文壺와 梨大所藏 青華白磁松竹人物文壺를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13・14	梨花史學研究所	1983
〃	⑥「蓮唐草文 變遷과 印花文 發生試考 －廣州陶水里 粉青沙器 窯址 대접과 圓을 中心으로」	『梨大史苑』20	梨大史學會	1983
〃	⑦「扶安 牛東里 粉青沙器窯」	『粉青沙器』 梨花女大博物館 特別展圖錄13	梨花女大博物館	1984
〃	⑧「高麗白磁研究」	『考古美術』171・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	⑨「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 小考」	『三佛金元龍教授停 年退任紀念論叢Ⅱ』	一志社	1987
〃	⑩「分院成立 時期에 관한 小考」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姜敬淑	① 「國寶 107號 白磁鐵畫포도무늬 항아리-무늬를 통한 製作時期 試論」	『梨花史學研究』17·18	梨花史學研究所	1988
金英媛	① 「朝鮮朝 印花粉靑의 編年の 考察 -光州 金谷里窯 出土品을 中心으로」		서울대 碩士論文	1980
”	② 「朝鮮朝 印花粉靑沙器의 樣式分類」	『考古美術』148	韓國美術史學會	1980
”	③ 「朝鮮前期粉靑과 象嵌白磁에 관한 研究」	『考古美術』153	韓國美術史學會	1982
金元東	「新安에서 沈沒된 元代 木船의 沈沒 年月과 引揚된 陶磁의 編年에 관한 研究」	『美術資料』42	國立中央博物館	1988
金載悅	① 「高麗白磁의 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87
”	② 「고려백자의 발생과 편년」	『考古美術』177	韓國美術史學會	1988
왕성수	「고려푸른자기 무늬의 변천에 대하여」	『역사과학』2	평양: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2
”	「고려자기의 색깔에 대하여」	『역사과학』3	”	1983
”	「고려자기의 모양에 대하여」	『역사과학』4	”	1984
尹龍二	① 「朝鮮時代 分院의 變遷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碩士論文	1980
”	②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1·2)-廣州一帶 陶窯址를 중심으로」	『考古美術』149·151	韓國美術史學會	1981
”	③ 「粉靑沙器의 消滅과 白瓷의 발생에 관하여」	『潤松文華』20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1
”	④ 「高麗陶瓷의 變遷」	『潤松文華』31	”	1986
”	⑤ 「12世紀 高麗靑磁에 관하여」	『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II』	一志社	1987
”	⑥ 「莞島海底 출토 陶瓷器의 製作時期에 대하여」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李相起	「朝鮮 前期의 靑華白磁-編年에 대한 試考」		弘益大 碩士論文	1984
張南原	「朝鮮時代 後期白磁의 새로운 傾向」	『考古美術』183	韓國美術史學會	1989
鄭良謨	① 「朝鮮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19 李朝篇	小學館	1980
”	② 「京畿道廣州 分院窯址에 대한 編年の 考察」	『韓國白磁 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	③ 「高麗陶磁의 研究」	『考古美術』171·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	④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圖錄』	國立中央博物館	1989
”	⑤ 「朝鮮白磁의 變遷」	『朝鮮白磁展』I	湖巖美術館	1983
”	⑥ 「朝鮮前期靑華白磁의 變遷」	『朝鮮白磁展』II	”	1985
”	⑦ 「18世紀 靑華白磁에 대하여」	『朝鮮白磁展』III	”	1987
조대일	「분장자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역사과학』1	평양:과학백과 사전출판사	1989
천석근	「고려푸른자기의 무늬박이 치장양식의 변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	평양: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9
崔健	① 「高麗鐵繪靑磁의 研究」		弘益大 碩士論文	1981
”	② 「韓國 靑磁 發生에 관한 背景의 考察」	『古文化』31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7
”	③ 「粉靑沙器의 成立與件에 관한 考察」	『文化財』21	文化財管理局	1988
”	④ 「朝鮮時代 後期白磁의 衰退原因에 관한 考察」	『韓國現代美術의 흐름 -石南 李慶成先生 古稀紀念論』	一志社	1988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6-1 論文集·著書·文庫本 (1990-2003年)

著者	論文集	發行處	年度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尹龍二	『韓國陶磁史 研究』	文藝出版社	1993
姜敬淑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1995
〃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영진	『조선 도자사 연구—삼국~고려』	사회과학출판사	1995
方炳善	『조선후기 백자 연구』	一志社	2000
尹龍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학교재	1998
鄭良謨	『高麗靑瓷』	文物出版社	2000
〃	『너그러움과 해학』	학교재	1998
方炳善	『순백으로 빛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姜敬淑	『분청사기』	대원사(빛깔있는책)	1990
金英媛	『조선백자』	대원사(빛깔있는책)	1991
鄭良謨	『고려청자』	대원사(빛깔있는책)	1998
尹龍二	『우리 옛 길그릇』	대원사(빛깔있는책)	1999
崔健 外	『토기·청자I,II』	도서출판 藝耕	2000
金載悅	『분청사기·백자I,II』	도서출판 藝耕	2000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6-2 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 土器 및 磁器 (1990-2003年)

著者	論文	掲載	發行處	年度
姜敬淑	「高句麗 土器의 對中交涉」	『高句麗 美術의 對中交涉』	藝耕	1996
李鍾珉	「百濟時代 輸入陶磁의 影響과 陶磁史의 意義」	『百濟研究』27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7
李蘭英	「百濟地域 出土 中國陶磁 研究」	『百濟研究』28	〃	1998
金英媛	「百濟時代 中國磁器의 輸入과 倣製」	『百濟文化』27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8
〃	「統一新羅時代 鉛釉의 發達과 磁器의 出現」	『美術資料』62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李松蘭	「古新羅 古墳出土 土偶裝飾土器에 보이는 南方의 要素」	『丹雪李蘭映博士停年紀念 論叢考古歷史學志』	東亞大學校博物館	2000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6-3 高麗青磁 (1990-2003年)

—가나다順—

著者	論文	掲載	發行處	年度
姜敬淑	①「高麗青磁의 編年試案」	『考古美術史論』6	忠北大 考古美術史學科	1998
〃	②「高麗青磁의 對中交涉」		韓國美術史學會	2002
具一會	①「高麗時代 青磁象嵌대접」		弘益大碩士論文	1991
〃	②「高麗時代 青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 —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54	國立中央博物館	1994
〃	③「東垣선생 寄贈 青磁에 關한 一考察」	『東垣學論文集』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00
吉良文男	「高麗青磁史への一視點」	『東洋陶磁』	東洋陶磁學會	2002
金允貞	「高麗 後期에서 朝鮮 初期 象嵌青磁에 나타난 元代磁器의 影響」		弘益大碩士論文	2003
金載悅	①「高麗陶磁의 象嵌技法 發生에 關한 一考察 — 原(proto)象嵌文의 존재를 중심으로」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2	三星文化財團	1997
〃	②「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4	〃	1999
南珍珠	「尙州 靑里 古墳 출토 靑磁 編年研究」	『美術史學研究』225·226	韓國美術史學會	2000
朴敬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解體와 窯業 體制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238·239	〃	2003
方炳善	①「高麗象嵌青磁의 發生에 따른 상감무늬의 高찰」		東國大碩士論文	1991
〃	②「高麗青磁의 技術史的 考察」	『美術史學研究』198	韓國美術史學會	1993
尹龍二	①「干支銘 象嵌青瓷의 製作時期에 關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青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	②「高麗青瓷 起原과 發展」	『韓國陶磁史 研究』	文藝出版社	1993
〃	③「高麗青磁의 起原」	『東洋陶磁』22	東洋陶磁學會	1994
〃	④「한국청자의 성립」	『美術史論壇』15	韓國美術研究所	2002
李恩敬	「高麗與北宋越窯青瓷之交流研究」		私立中國文化 大學史學研究所 博士論文	2002
李鍾玟	①「14世紀 高麗 象嵌青磁 研究」		弘益大碩士論文	1992
〃	②「14世紀 後半 高麗象嵌青磁의 新傾向 — 음식기명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01	韓國美術史學會	1994
〃	③「始興 芳山洞 初期青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228·229	〃	2001
〃	④「南部地域 初期青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16	미술사연구회	2002
〃	⑤「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博士論文	2002
〃	⑥「韓半島中部地方의 初期青磁窯」	『韓日文化藝術交流史의 解明と 普及による 藝術文化據點形成 事業報告書』	藝術據點形成事業 大阪市實行委員會	2003
〃	⑦「韓國 初期青磁의 形成과 傳播」	『美術史學研究』240	韓國美術史學會	2003
李喜寬	①「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青磁의 製作年代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研究』217·218	韓國美術史學會	1998

李喜寬	②「高麗青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湖巖美術館 所藏 青磁象嵌牡丹文 '辛丑' 銘머루 銘文의 檢討」	『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	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0
〃	③「始興 芳山大窯의 生産集團과 開始時期 問題—芳山大窯 出土 銘文資料의 檢討」	『新羅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新羅文化財學術 論文集2 慶州市 新羅文化宣揚會· 東國大新羅文化研究所	2002
〃	④「韓國 初期青磁 生産體制的 成立과 展開」	『對外文物交流研究』	海上王張保臯 紀念事業會	2002
李喜寬·崔健	⑤「韓國 初期青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韓國 青磁 製作의 開始時期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美術史學研究』237	韓國美術史學會	2003
張起重	「窯道具를 통해 본 初期青磁 窯業의 變遷」	『미술사연구』16	미술사연구회	2002
張南原	①「高麗時代 陶器와 靑瓷」	『제3의 전통, 용기의 源류를 찾아서』	梨花女大博物館	2000
〃	②「'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231	韓國美術史學會	2001
〃	③「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大博士論文	2003
〃	④「高麗時代 京畿地域의 窯業性格에 關한 試考」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학술세미나	京畿道博物館	2003
田勝昌	「靑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	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2
鄭良謨	①「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	②「高麗 陶磁 銘文의 性格」	『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	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0
鄭于澤	「文樣으로 본 高麗佛畫와 靑磁」	『고려청자와 종교』	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2
崔健	①「高麗時代後期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關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	②「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을 中心して」	『東洋陶磁』22	東洋陶磁學會	1994
〃	③「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창간호	韓國美術研究所	1995
〃	④「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1998
〃	⑤「干支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	康津青磁資料 博物館	2000
〃	⑥「羅末麗初 韓國 磁器의 系列과 變遷—특히, 9-10세기 磁窯의 興망성쇠를 중심으로」	「제2회 용인시사 학술회의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재조명」	용인문화원	2000
〃	⑦「韓國 靑磁 研究의 새로운 動向」	『미술사연구』16	미술사연구회	2002
崔宣一	「靑磁 굽바닥에 생긴 標識의 實體와 意味-康津窯址 出土品을 중심으로」	『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	康津青磁 資料博物館	2000
韓盛旭	①「高麗 後期 靑瓷의 性格-器形과 胎土 分析을 中心으로」		木浦大碩士論文	2001
〃	②「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美術史學研究』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	③「靑瓷 舍利容器의 研究」	『고려청자와 종교』	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2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6-4 粉靑沙器 (1990-2003年)

—가나다順—

著者	論文	掲載	發行處	年度
姜敬淑	① 「粉靑沙器 연구현황」	『考古美術史論』2	忠北大 考古美術史學科	1991
〃	② 「粉靑沙器」	『韓國美術史의 現況』 한림과학원총서 7	藝耕産業社	1992
〃	③ 「燕岐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 —문양 분석과 제작시기 시도」	『美術史學研究』197	韓國美術史學會	1993
〃	④ 「初期 粉靑沙器가마터 분포에 대한 一考察」	『泰東古典研究』10	泰東古典研究所	1993
〃	⑤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 · 陶器所 研究—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02	韓國美術史學會	1994
〃	⑥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 문제 시론」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下)』 朝鮮時代篇, 近現代篇	一潮閣	1994
〃	⑦ 「世宗實錄 磁器所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5	忠北大 考古美術史學科	1997
李愛玲	「印花技法 粉靑沙器의 變遷研究 —忠淸南道 公州郡·燕岐郡의 일부지역을 中心으로」		梨花女大碩士論文	1993
田勝昌	① 「15世紀 朝鮮 粉靑沙器·白磁의 移行研究」		弘益大碩士論文	1994
〃	② 「15世紀 陶磁所 考察(I) —慶尙北道 尙州地域의 變化과정을 中心으로」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1	三星文化財團	1996
〃	③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磁性格의 變化」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1998
鄭素羅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沙器 研究 —忠孝洞窯址出土遺物을 中心으로」	『美術史學研究』223	韓國美術史學會	1999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6-5 朝鮮白磁 (1990-2003年)

—가나다順—

著者	論文	掲載	發行處	年度
姜敬淑	① 「日本 有田 天狗谷窯에 보이는 韓國文化의 영향」	『考古美術』185	韓國美術史學會	1990
〃	②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 분원과 조선도자』	京畿道博物館	2001
〃	③ 「15世紀 京畿道 廣州 白磁의 成立과 發展」	『美術史學研究』237	韓國美術史學會	2003
權素玄	「朝鮮 15世紀 象嵌白磁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40	〃	2003
金英媛	① 「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서울대博士論文	1995

金英媛	② 「世祖—成宗년간의 分院의 設置와 陶磁樣式의 變遷」	『美術史論壇』2	韓國美術研究所	1995
”	③ 「朝鮮時代 窯業體制的 變遷—陶器所·磁器所에서 分院 官窯로」	『美術資料』66	國立中央博物館	2001
”	④ 「分院官窯와 地方窯」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京畿道博物館	2001
金元東	「中國 青花磁器의 起源에 관한 問題」	『美術史學研究』215	韓國美術史學會	1997
羅善華	「16-17世紀における韓國の窯業技術」	『東洋陶磁』27	東洋陶磁學會	1997
方炳善	①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研究」		東國大博士論文	1997
”	② 「孝·肅宗時代의 陶磁」	『講座美術史』6	韓國美術史研究所	1994
”	③ 「眞景時代 朝鮮白磁」	『潤松文萃』50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96
”	④ 「朝鮮後期 白磁의 製作技術 研究」	『美術史學研究』214	韓國美術史學會	1997
”	⑤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백자의 편년 체제」	『美術史學研究』220	韓國美術史學會	1999
”	⑥ 「고종연간의 분원 민영화 과정」	『역사와 현실』33	韓國歷史研究會	1999
”	⑦ 「朝鮮後期 白磁에 나타난 山水文 研究」	『考古美術史論』7	忠北大 考古美術史學科	2000
”	⑧ 「중국 어기창과 광주 분원」	『광주분원과 조선 도자』	京畿道博物館	2001
”	⑨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 교류사 연구」	『美術史學研究』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	⑩ 「조선 전기 한양의 도자—청화백자를 중심으로」	『講座美術史』19	韓國美術史研究所	2002
宋기쁨	「韓國 近代陶磁 研究」	『미술사연구』15	미술사연구회	2001
李芝賢	「朝鮮時代 明器의 研究」		弘益大碩士論文	2000
尹傲靖	「朝鮮 15·16世紀 靑畫白磁 捐軀」		梨花女大碩士論文	2002
張起熏	① 「朝鮮時代 17世紀 白磁의 研究」		弘益大碩士論文	1996
”	②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1998
”	③ 「조선 17세기 전반 분원의 백자양식 변천」	『美術史學研究』224	韓國美術史學會	1999
張南原	① 「朝鮮時代 後期의 陽刻白磁」	『陶藝研究』15	梨花女大陶藝研究所	1993
”	②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 《五洲衍文長箋散考》의 〈古今瓷窯辨證說〉과 〈華東陶瓷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論壇』6	韓國美術研究所	1998
田勝昌	① 「朝鮮前期의 白磁 전집시 考察」	『湖巖美術館 研究 論文集』2	三星文化財團	1997
”	② 「15世紀 位牌形 磁器墓誌와 位牌裝飾 考察」	『湖巖美術館 研究 論文集』4	”	1999
”	③ 「朝鮮後期 白磁裝飾의 民需要素 考察」	『미술사연구』16	미술사연구회	2002
崔敬和	「編年資料를 통하여 본 19世紀 靑畫白磁의 樣式의 特徵」	『美術史學研究』212	韓國美術史學會	1996
本田まび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 陶磁 比較研究—日本九州 肥前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서울대博士論文	2003

參考文獻 (List of References) 6-6 科學的分析 (1990-2003年)

—가나다順—

著者	論文	掲載	發行處	年度
姜景仁	①「全南地域의 古代 土器 및 陶磁器에 관한 自然科學的 研究」		全南大 無機材料學科 博士論文	1997
姜景仁·鄭昌柱	②「全南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 出土 土器片의 自然科學的 分析」	『靈岩鳩林里 陶器窯址 2次 發掘調查報告書』	梨花女大博物館	2001
高慶信	①「한국 도자기문화의 과학기술적 연구 -충청남도 공주군 사곡면 신영리 고려자기와 의당면 중흥리 분청사기 도편의 분석실험」	『한국과학사학회지』	한국과학사학회	1992
高慶信·都珍英	②「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출토 철화백자와 청화백자의 과학기술적 연구」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忠北大博物館	1995
高慶信 外	③「扶餘 갓점골 白磁 가마터에서 출토된 철화백자 및 甗器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扶餘 正覺里 갓점골 遺蹟』	忠淸埋藏文化財 研究所	2002
金智淑	「朝鮮白磁의 成分分析 및 微細構造 研究」		中央大 化學科 碩士論文	1994
朴昌庫	①「忠州 彌勒里 白磁가마터에 대한 考古地磁氣 測定」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忠北大博物館	1995
〃	②「음성 생리 청자가마터 숫가마 燒土에 대한 考古地磁氣 測定 結果」	『陰城 笏里 청자가마터』	忠北大博物館	2002
方炳善	①「康津 靑磁釉藥에 대한 실험적 고찰」	『康津의 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
〃	②「山本 靑畫白磁가마 陶片의 實驗的 考察」	『軍浦 山本洞 靑畫白磁 窯址』	忠北大 先史文化研究所	1993
〃	③「음성 생리 청자가마터 도편의 태도·유약 분석」	『陰城 笏里 청자가마터』	忠北大博物館	2002
尹 銑	①「珍山里 17號 窯址의 自然殘留磁氣 測定結果에 관하여」	『海南 珍山里 靑磁 窯址』	木浦大博物館	1992
〃	②「軍浦 山本洞 白磁窯址의 自然殘留磁氣測定」	『軍浦 山本洞 靑畫白磁 窯址』	忠北大 先史文化研究所	1993
李英恩	①「朝鮮 粉靑의 成分 및 微細構造 研究」		中央大 化學科 博士論文	1998
〃	②「광주군 건업리 백자가마터에서 출토된 소문백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廣州 建業里 朝鮮白磁 窯址 -建業里 2號 가마遺蹟 發掘調查 報告書』	海剛陶磁美術館	2000
李英恩·高慶信	③「한국 전통 도자기의 번조 공정에 관한 미세구조 연구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Vol.46, No.2		2002
Pamela B. Vandiver · Jennifer Hooper	「한국도기의 제작기법과 유약기술의 발달-삼국시대 도기에서 웅기까지」	『영암 구림리 도기요지2차 발굴조사 보고서』	이화여대박물관	2001

ABSTRACT

The Approaches to the Study of Korean Ceramics

Kang Kyung-sook*

The study of Korean craft history encompasses ceramics, metal ware, wood and lacquer, and glass and jade. Different from painting and sculpture, craft in art history embraces the closest field to man, reflecting not only the craftsman's artistic spirit but also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nd the cultural roots at that time. Among the various genres in craft, ceramics has the longest history from the Neolithic times, when clay was first handled, to the present age. Ceramics are collected from various sites including the production sites, tomb burial sites, everyday life sites etc., and these materials hav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field. In recent times, the compilation of new information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materials, the excavation of new sites and the unrestricted exchanges with neighboring nations have brought about lively activities in the study of ceramic history. Thu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lars and students in this field, the understanding of the approaches to the study of ceramics is all the more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study of this field, and then discuss by theme, the issues and research methods.

The Archaeological Approach. In the study of ceramic history, the kiln site excavation comprises as the foundational study, and the excavated shards present the first hand

*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terial. Excavation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rchaeology, and the ceramic history scholar must learn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kiln technology by carefully observing the kiln structure as the most direct knowledge cannot be fully comprehended from viewing the drawings from the excavation report. Observation of the kiln includes the view of the overall kiln complex, the careful survey of the firing hole, chimney, firing chambers, side entries, firing poles, kiln slant, evidence of restoration or reconstruction, etc.. Furthermore, the scholar must also observe how many kilns were active at that time, whether the kiln was overlapped or whether the kiln was moved around, what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kilns were, and what the condition of the accumulation of the discarded pieces was like. The next step would be the survey of the site where the clay was cleansed and kneaded, the workshop where the clay was thrown on the wheel and moulded, decorated, glazed, and dried, and the site where the raw clay was kept (or whether the clay was dug up near by). The importance of excavation in the study of ceramic history has already been emphasized through two major academic symposiums.

Art Historical Approach. This mainly embraces the study of the excavated shards from kiln sites. The form, design, glaze color, foot carving, and wheel method are thoroughly examined. In addition, saggars and potter's tools (if they are present), and firing method (individual firing or stacked firing), etc. are carefully studied. In this process, art history is applied. Stylistic classifications by looking at the shape, design, and glaze color,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what they mean, what period can be given to the site when an object or objects with absolute dating is excavated, and what period can be assessed to the site when no material with dating is yielded, must all be analyzed.

Humanities Approach. This field encompasses the historical, geographical, and documentary records. As in all fields of art history, the production background for ceramics is all-evident: National circumstances were involved both in the production of Koryō celadon and Chosōn white porcelain. Although records on Koryō celadons are not sufficient, the National Code of the Chosōn period states that the official kiln was established in 1469,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hronology and the ceramic view of the period. Through official record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official kilns but also of the local, provincial kilns can be achieved. In addi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punch' ōng ware, a distinctive ware which first began from the change in celadon with *sanggam* inlay design during the reign of King Kongmin of Koryō and which developed well into the early Chosŏn period, is not complete without the comprehension of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Cultural Exchange Approach. In the development from earthenware to celadon, from celadon to white porcelain, the influence of Yuezhou wares of the Zhejiang region on celadons, and the influence of Ming blue-and-white porcelain on white porcelain, are well known.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ree Kingdoms pottery on Japanese pottery, and the influence of Chosŏn punch' ōng and white porcelain on Japanese wares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re undisputed. Undoubtedly, ceramic culture developed and transformed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fluence. The major issues involved in this field would be on how the foreign influences was absorbed, attaining Koreanization, and how the Korean art achieved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 what the cultural significance is of the Korean ceramics that influence Japanese pieces, etc.. Cultural exchange is only possible with the concrete comprehension of the ceramic culture of both countries. After establishing an understanding of Korean ceramic history, a comparison with Chinese and Japanese ceramic history becomes practicable. Thus, research into the cultural exchange remains an important field in this approach.

Scientific Analysis. Scientific research can offer stronger support in the study of the stylistic development. The chemical analysis of the glaze, clay, and paint provide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cultural exchange, and chronology. In addition, the fire-hardened kiln, as long as it had not been destroyed, is subject to possible dating according to the archaeo-terrestrial magnetism, a process that cannot be conducted by art historians as it requires special equipments and professional technology. Excavation of kiln sites mostly yield large quantities of shards, making chemical analysis of the shard much easier, and kiln sites are not destroyed by the archaeo-terrestrial magnetism. Thus, the compilation of the scientific analysis reports shall comprise as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studies in ceramic history, and the institutes in charge of excavations must keep this important responsibility, sharing as many materials for

analysis.

Field Investigation. This is the most basic step in the study of ceramic history. As long as the kilns from hundreds of years ago are not completely destroyed, the traces are left behind. During field investigation, one must be prepared with maps and information, and objects found in the sites must be reported after the detailed study of the objects. Afterwards, objects must be returned to the government as those that remain in private hands eventually disappear.

Present Issues in the Study of Ceramic History. ① Most of the excavations thus far were executed not for scholarship but as last minute resolutions before new constructions. Moreover, many of the sites were conducted by those who did not major in ceramic studies. Thus, in the future we await improvement in this field. ② The entire peninsula is under serious threat from development, and the important kiln sites have been destroyed. Though legal limitations have been prepared, they are yet insufficient in action. ③ Excavation reports, pressured under time and expenses, are oftentimes inadequate and were written by non-majors. When non-majors are in charge, experts and scholars must be sought after as advisors. ④ The issue on terminology in ceramics remains. From the terminology for kiln structure to the ceramic names, there is no uniform standard. This is not one person's fault but the negligence of the scholars in all.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lars, the issue must first be resolved. ⑤ Lastly,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reckless robbery of the sites. When kiln sites are destroyed, the first hand materials are lost and scholars have no where to stand. Thus, a national resolution must be made.

The approaches and issues presented in this paper cannot be resolved by one person. Excavations must be executed by archaeologists, kiln technology must be studied according to kiln technology, scientific analysis must be conducted by chemists and scholars of inorganic materials, and archaeo-terrestrial magnetism must be carried out by geologists. The humanities approach, the art historical approach, and the cultural exchange approach remain in the hands of scholars of ceramic history. Though research by one individual cannot be but narrow, the compilation of the efforts of individual scholars shall provide an overall depth in the study of this field.